

2011. 3.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루카 1,38)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대로 하였다."

(마태 1,24)

기욤- 조셉(윌리엄 요셉) 샤미나드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시대의 하느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대답하기



예수 탄생 예고 - 마들렌느 성당

요셉과 마리아의 본보기에 영감을 받아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네" 라고 대답했다.

몇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그것을 알아보자...

#### 1) 교회 활성화의 필요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1545-1563)가 원하는 긴 개혁의 시기를 살았다.

기욤-조셉(윌리엄 요셉)은 뮤시당에서 성 샤를르(까를로스) 사제 공동체에 들어간다.

이 공동체는 특히 프랑스에서 성 샤를르 보로메와 성 빈센트 드 폴 (빈센트 아 바오로)에 의해 특징지워진 새로운 선교사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성 샤를르는 교육에 의한 사회 개혁의 장소이다.

이 신심회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1항 :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 여긴다.

5항 : 그것을 위해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10항 : 감추어진 내적 삶을 교육에 결합시킨다. (Verrier, *Jalons*1, 71/102)

## 2) 혁명, 수도회들의 패배, 공포정치(박해)

샤미나드는 평신도들을 신앙으로 강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비밀리에 교회에 봉사한다.  
많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사도들을 양성한다.

## 3) 사라고사로의 망명

모든 사도직 활동과 모든 책임들의 금지로 그는 스페인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프랑스 주교들과 사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속고하는데 자신을 바친다. 주교들과 사제들에 의해 출판된 많은 작품들은 그 속고들의 강렬함을 증거한다.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선교에 대한 영적, 내적 준비를 위한 시기이다. 그것은 또한 마리아께 대한 강렬한 경험의 시기이고, 창립에 대한 결정적인 영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라므르즈 양은 스페인에서 부터 그분의 뒤를 돌봐주는 일을 계속한다.

## 4) 비그리스도화된 프랑스로 돌아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모으고 종교적인 무관심에 대항하기위한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신심회 창설로 복음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문자와 정신의 올바른 안에서 살려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애덕을 실천하는 사도직과 공동체의 열성을 드러내는 교육을 통한 복음화. 젊은 청년, 젊은 여성, 남·녀 성인들(아이들 공동체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심회 - 동조자들과 청원자들 모든 세대와 성별과 사회적 신분을 불려모은 것은 샤미나드 신부의 선교사다운 시각에 소중한 원칙이다.

신심회들은 사회적인 일들과 선교사적인 많은 일들에 적극적이었다. 초창기부터 신심회들중 한 부분은 학교 교육을 한다. 그것은 복음화에 새로운 필요에 더 이상 응답하지 못하는 본당 구조의 교체를 의미한다.

마리아께서는 이 모든 선교사적인 노력들의 보호자이시며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이단들, 특히 종교적 무관심들을 거슬러 싸우시는 분, 당신 아들의 형상으로 양성하시는 분이시다.

## 5) 1808: 신심회의 패배

그것은 책임자들 중 한 사람의 신중성의 결여에서 온 결과다.

그것은 세상안에 있는 수도자 신분이란 비밀스런 신심회의 열성을 제자리에 놓게 되는 기회가 된다. 다양한 시도들은 젊은이들에게 개인 서원을 통한 참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해서 신심회 미래 책임자들이 양성되는 뜻이 만들어지고, 두 수도회의 회원들이 탄생하게 된다.

## 6) 1815: 신심회의 재건

다양하고 독특한 길을 통해 계획이 추구되고 재편성됨.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과 평신도로서 혹은 개인 서원을 한 서원자로서의)  
신심회의 커다란 도약.

## 7) 수도 생활의 첫 지원자들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창립 (1816),

마리아회의 창립(1817): « 죽지 않는 사람 »으로서

신심회의 사명을 지지하고 그 활동을 넓히기 위하여...

수도회의 탄생은 평신도 신심회에 의해 이미 탐색된 선교사로서의 활동들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특별한 어려움없이 부드럽게 이루어졌다. 특별히 학교 교육은 아주 빠르게 첫 번째 활동이 되었는데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목표를 지닌 수사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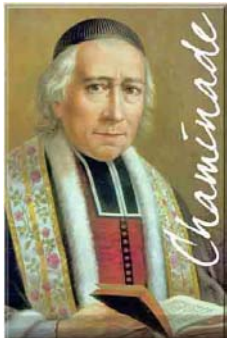
가르치는 일은 특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그리고 기술과 전문교육이 된다.

생-레미(Saint-Remy ,Haute-Saône)에 첫 번째 교원학교를 책임지는 것을 발판으로 교원학교 조직안에서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을 통해 프랑스 전체를 복음화하고자하는 전망을 펼쳤으나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그 첫 단계에서 멈춘다.

## 8)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기

전생애 동안 그리고 창립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하는 동안 샤미나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주의 기울인다. 생애의 어둠 하나 하나가 새로운 적응과 창조 기회 된다.

### 샤미나드 신부 말씀



샤미나드 신부는 언제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행동했으며 결코 자신의 고유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교황께 보내는 창립에 대한 모든 소개들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서술은 1839년 작성된 마리아회 회헌의 승인을 청하는 교황께 보낸 또 다른 편지(L 1074 )에 근거한 것이다.

### 로마의 그레고리오 16세 교황께

보르도, 1838.9.16. (편지, Lettres IV – n. 1076)

### 마리아의 딸 수도회와 마리아회를 창립하면서 이 두 수도회의 회칙을 만든이의 간략한 설명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계시의 아름다운 체계의 붕괴에 가담한 신교도주의와 근대의 이성주의, 종교를 모독하는 믿을 수 없는 노력들을 보며 오래전 부터 저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 세기 초에 이 강력한 방해물인 악의 격류에 맞서 흔들리고 있는 세상 어디에서나 신앙의 신적인 불꽃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연령과 성별,

모든 신분의 카톨릭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모임들로 다시 모으고, 우리의 거룩한 종교가 허영심 없이 또한 인간적 체면에 걸려넘어지지 않으며 그 도덕성과 그 교의의 모든 순수함 안에서 실천되게 하는 사도적 선교사를 허락하는 공문서를 성좌에 간청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 그 때부터,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에서 열성적인 남녀 신심회들이 형성되었으며, (...) 짧은 시간에 충분한 수에 달했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 이 탁월한 방법은 모든 것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권력에 의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 시대의 철학과 신교도주의는 어른을 점령하고, 학교들은 특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정신 안에, 더우기 나뉘지 않는 마음에 까지 이러한 생각의 자유 방임 주의를 퍼트리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단지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악들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느님 앞에서, (...) 새로운 두 수도회를 창립해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는 동정녀들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남자들로서 하나의 깃발아래 학교라는 터전에서 그들의 좋은 본보기를 통해 모든 단계, 모든 대상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가장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학급을 열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교가 낡은 관습이 아니라는 것과 복음은 오늘날도 18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며 수천가지의 선전과 겨룰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이에 하느님의 섭리는 저에게 20년이 넘는 세월 전에 마리아의 딸 수도회와 마리아회를 창립할 계획을 불러넣으셨습니다.

마리아회는 세 가지 신분으로 구성됩니다.

- 1°) 그 첫번째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보급하는 것을 핵심적인 사명으로 하는 학식있는 평신도들 신분
- 2°) 그리스도인의 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깨우치고, 이 세기에 만연되어 있는 악으로 부터 젊은이들을 견제하고 보호하기위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기술과 직업 학교들을 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신분
- 3°) 마지막으로 두 신분들의 소금이며 영혼인 사제들 신분으로, 그들은 그 숫자가 충분해지면 세상에서 사제직의 모든 역할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 신분은 마리아회와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지도를 책임집니다.

동정녀들의 수도회는 1816년 아장에서 창립되었고(...) 그 이름을 마리아의 딸 수도회로 정했습니다. 이 수도회는 마리아회와 같은 목적으로 일하므로 교육, 성별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고유한 일들, 신심회와 자선에 관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두 수도회의 회칙은 (...) 현 세기의 무한한 필요들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수도회의 명칭은 장엄하신 마리아의 독특한 이름에서 취했습니다.

두 수도회가 지상의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알게하고, 찬양하게하고, 사랑하게 할 수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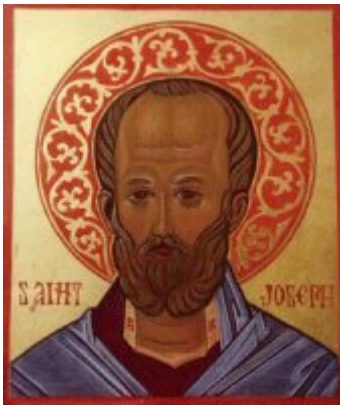
저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께 특별히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영광을 예정해 두셨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당신 종의) 개인적인 자격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성좌 앞에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아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영광과 힘을 보아 주십시오!

마리아회 총장  
기욤-조셉(윌리엄 요셉) 샤미나드

### 보호자이며 모델이신 성 요셉

“대주교께서는 1805년 3월 7일 저에게 신심회의 두번째 수호자로서 성요셉의 축일을 허락하셨습니다.” (EP1 - 59-172)



"저는 이제 막 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토록 높고 초자연적인 신중함을 타고 나신 성 요셉의 손에 저를 모두 맡겨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들, (...) 사람들마저도 맡겨드렸습니다. 그 분의 중재로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더 이상 일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하느님을 찾으시기를... 우리는 마리아의 자녀들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

광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 요셉께서 선택한 자녀들이고 우리가 그 분을 신뢰하는것은 작은 동기가 아닙니다. (L III-674 - 19 mars 1833 - à M. Lalanne)

#### 이달의 기념일

- 9 : 사순절 시작 : 사명에 더욱 잘 응답하기 위해 회개하기
- 19 : 성요셉의 “네” (응답)
- 25 : 마리아의 “네” (응답, 예수탄생 예고)